



일본어 글쓰기를 하는 어린이.

일제강점기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땠을까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복 70주년 기념

7~30일 '학교로 보는 한국 근대사' 특별전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후 학교를 중심으로 식민지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부르고 수업시간을 점점 늘렸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공부 대신 기술자로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을 강화했다. 일제는 중국을 침략한 후에는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이른바 '황국신민화교육'과 군사교육 등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일본의 신민'임을 다짐하는 '황국신민서사'를 강제로 외워야했고, 일제식민통치의 상징적 장소인 신사를 참배해야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하 나주기념관)이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나주기념관에서 '학교로 보는 한국 근대사'를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시는 제1부 외국 계몽기부터 광복 직후까지 학교의 모습을 따라가는 독립기념관 패널 전시, 제2부 가상의 여학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전시, 나주초·나주 봉황초·전남여고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 학교의 관련 자료 전시 등 모두 3부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교교육이 도입되는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직후까지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교육정책이 전개되는 공간이자 한국인의 저항이 계속되는 장소였던 일제강점기 학교의 모습에서는 일제의 아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근대식 교육 도입을 다루는 전시에서는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근대학교 배재학당의 신축공사 모습, 안장호 선생이 세운 평양 대성학교 학생들의 모습, 영어 수업 장면 등 근대식 학교교육 도입 모습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학교에서는 일본어 글씨 쓰기를 연습하는 어린이들, 제복을 입고 긴 칼을 찬 교사와 학생들, '황국신민서사'를 암기하는 어린이들,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학생, 군사 교육 장면, 식민교육에 맞섰던 민족학교 등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마주하게 된다.

나주기념관이 마련한 패널전시에서도 일제강점기 일제가 '충량(忠良)한 국민의 육성'을 목표로 만든 1~4차 조선교육령의 실상을 살필 수 있다. 근로자를



광복 직후 광주 중앙공립국민학교(현 중앙초) 모습.

만들기 위한 교육, 일본어 보급 및 일본 역사 교육, 민족말살 정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1920년대 가상의 인물인 소영이라는 여학생의 학교생활과 시대상을 이야기하며 일제강점기 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지역 학교 관련 자료 전시에서는 나주초의 1913년 졸업사진, 1923년 개정교육령보통학교규정, 1930년 교문전경 등이 선보이고 나주 봉황초의 1930~1950년대 졸업사진, 1970년대 학교전경 사진 등이 영상과 함께 전시된다. 또 전남여고에서 보관 중이던 옛 책걸상이 전시되며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와함께 나주기념관은 오는 12일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기능보유자인 김춘식 선생이 운영 중인 나주반 전수교육관과 공동으로 11~16일 기념관 로비에서 '나주반 기획전시 및 광복절 부채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광복절 당일인 8월15일에는 태극문양이 그려진 전통부채만들기 체험행사가 예정돼 있다. 문의 061-334-539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군사교육 모습.



나주 초등학교의 1913년 졸업사진.

화정동 주민들의 '한여름밤 영화제'

8일 오후 8시 서초등학교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상영

광주 화정동에는 '우리 동네 무늬만 학교'가 있다. 마을이 학교이며 마을의 모든 공간이 학습과 놀이의 장이다. 마을 주민들이 교사고,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서로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이기도하다.

현재 화정1동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기관·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다.

우리동네 무늬만학교 주민협의회,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가 주최한 '한여름밤의 영화제'가 오는 8일 오후 8시 광주 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날 함께 보는 영화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다. 최민수·김혜자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로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열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휴먼 코미디다.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888 영화제'라는 부제로 열리는 '한여름밤의 영화제'는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자는 의미로 열렸다. '다모여! 런닝운동회'에 이은 두번째 행사다. 문의 062-376-13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은암미술관 광복 70주년 드로잉 퍼포먼스·전시

6~24일...시민 누구나 참여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광복 70년, 분단 70년-미래로 통일로(未來路 統一路)'를 주제로 드로잉 퍼포먼스와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그룹 '새벽' 회원들 주도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어 작가와 시민들이 광복 70주년과 남북 분단, 이산가족 등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자리다.

6~15일에는 드로잉 퍼포먼스가 진행

된다. 회원들이 3가지 큰 주제 속에 자유롭게 드로잉을 펼치게 된다. '과거-광복'을 주제로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담고, '현재-분단'으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현실을 작품에 녹여낸다. 또 마지막 퍼포먼스는 '미래-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초석이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은 행사다.

이 작품들은 오는 15~24일 미술관에서, 광복 70주년을 주제로한 작품들과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청년센터 "청년들의 도전 응원해요"

팀당 100만~1000만원 지원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청년challenge'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고 싶은대로 도전해보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challenge'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지역 혁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싶을 때 응모하면 된다.

광주 지역 내 20~30대 주축의 단체나 3인 이상 그룹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그룹 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광주청년센터 the숲 홈페이지 (<http://www.gjtheforest.kr>) 혹은 페이스북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메일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232-1938.

광주청년센터 'the숲이' '청년challenge'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하고 싶은대로 도전해보자"는 주제로 진행되는 '청년challenge'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을 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지역 혁신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싶을 때 응모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지하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광산구 북동동 주유소 부지 나주~송정간 도로 위치
대지 1988㎡ 건물 517㎡
감정가 8억 8천 5백
최저가 8억 8천 5백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암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축하화환3단
결혼, 고희,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화환 ▶ -100,000
70,000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점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롤러나 스펀지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